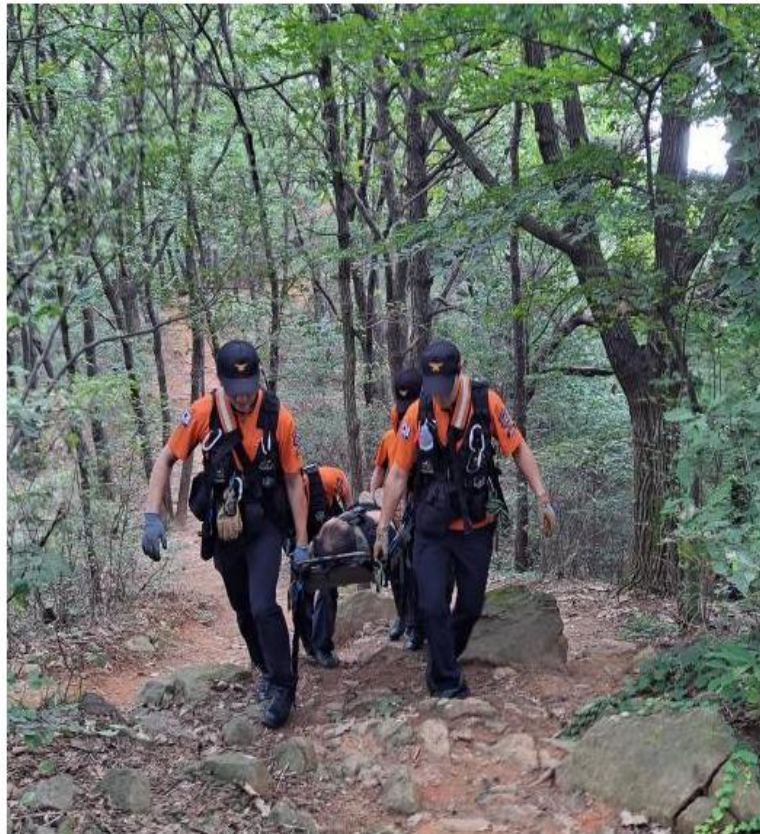


## 광명소방서, 등산 중 무릎 부상 남성 구조

광명소방서 구조대, 구름산 등산 중 무릎 부상 남성 구조하다

기사입력시간 : 2024/08/27 [12:38:00]

신훈중 기자



[미디어타임즈=신훈중 기자] 광명소방서는 지난 25일 구름산 등산 중 무릎 부상 등산객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.

8월 25일 10시 35분경 등산 중이던 남성이 구름산 돌산전망대에서 무릎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광명소방서 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하였으며, 구조대상자를 발견하여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 후 거동이 어려워 산악용 들것을 이용하여 하산하였다.

2023년 경기도 산악사고 현황을 보면 봄·가을철 집중되던 것과 달리 여름철에도 산악구조 출동이 증가하였다. 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등산을 위하여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
추진 내용으로는 ▲봄·가을철 '산악안전지킴이' 운영 ▲산악 안전 시설물 점검·정비 ▲심폐소생술 교육 등 산악사고 예방 활동 ▲산악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악구조 훈련 실시 등이다.

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“가을철이 되면 관내에 많은 등산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.”며, “산악사고를 대비하여 산악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전했다.